불교, 'Digital First'로 코로나 파고 넘어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600명대를 오가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방역지침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수도권 종교시설은 비대면 법회와 예배로 전환 · 운영됐다. 대면을 통한 의례와 행사, 포교에 치중된 종교계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일상이 도래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룬 논문들이 잇달아 발표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최근 발간한 〈종학연구〉 제5집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찰경영 방안(조기룡)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도교육과 포교 활성화 방안(김응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템플스테이 운영 방안- 템플스테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변화를 중심으로(하원 스님)를 게재했다. 이들 학자들이 제시한 대응 방안들의 공통점은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였다.

사찰경영 활성화 방안을 진단한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사찰들은 종교활동 위축과 재정 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특히 고정 지출이 많은 도심 대형사찰이나 문화재관람료 사찰의 경우 사정이 더 좋지 않다. 조 교수에 따르면 조계사의 경우 재정 수입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조계총림 송광사는 코로나19 이후 1개월 간 관람료 수입이 55% 감소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 교수는 △사이버 신행 문화 △온라인 보시 문화 △사찰 활동의 공공성 강화 △위로감과 안정감 제공 등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유튜브를 비롯한 SNS 플랫폼은 온라인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종교의 소통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 "사회생활과 일정 부문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스님들은 온라인 소통 도구가 어렵기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면 소통 도구의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IT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찰경영과 불교포교에서 IT의 접목은 필연적"이라며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종교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보시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비대면과 가상공간의 활용이 강조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연간기도 회원제와 특정 불사 온라인 기부는 적합한 사찰경영 방안"이라며 "아직까지 연간기도 회원제와 특정 불사 온라인 기부는 전체 신행활동에서 비중이 적지만, 이는 한국불교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재정 부족과 신도 조직화의 개선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줌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불련 온라인 법회 모습.

동국대 종학硏 〈종학연구〉서
코로나 대책 연구논문 '눈길'

대형사찰 고정예산 커 재정난
온라인보시 · 공공성 강화해야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필요해
명상 통한 불교대중화 모색을
비대면 템플스테이 전략 개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신도 교육과 포교 활성화 방안을 살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포교 활성화 방안으로 김 교수는 거시적 전략과 미시적 전략으로 나눠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거시적 포교 전략으로 김 교수는 단위 사찰, 신행단체 등의 포교 주체가 각자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데 종단이 집중적 투자를 할 것을 비롯해 △불교, 사찰, 스님에 대한 이미지 개선 △SNS 등을 통한 포교 기반 구축 △불교 수행방법 대중화 등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대는 잘 만든 동영상 하나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콘텐츠를 만드냐는 것"이라면서 "포교콘텐츠 개발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를 유치하고 상금을 주는 공모와 시상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시적 포교 방법은 각 사찰의 역량에 좌지우지되는 만큼 신도들의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평신도들의 발굴, 사찰 소임자들의 지원활동 확대 등의 요소가 결합될 때 효과적인 포교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하원 스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템플스테이 운영 방안을 언론 보도 변화를 통해 살폈다.

하원 스님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를 활용해 코로나19 전후의 템플스테이 언론기사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2019년과 2020년 동일 기간 템플스테이 뉴스 건수는 608건에서 426건으로 줄었다. 키워드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변화했다. 특히 공익적 템플스테이 등 사회적 역할들이 중요 키워드가 됐으며, 사회적 거리, 휴식형 등도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를 통해 하원 스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결 강화 △소규모 모임 · 가족 중심 템플스테이로 전환 △휴식형 템플스테이 강화 △비대면 서비스 채널을 통한 마케팅 전략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스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템플스테이 운영에 있어서도 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 경향의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청정한 자연환경과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심신 안정을 유발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운영 중단에도 템플스테이가 운영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채널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줌(Zoom)을 통한 명상 및 사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복지관, 어르신 디지털교육 박차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교육 중심

코로나19로 비대면 · 디지털기기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교계 복지관들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증대하는 가운데 특히 노년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개인간 그 격차가 더욱 뚜렷하며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 영위에 직결된 디지털 영역에서 역량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는 서울시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 '디지털배움터' 로 선정돼 7월 8일부터 스마트 정보화 프로그램 '스마트클라쓰' 운영을 시작했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스마트 정보화 프로그램 수요에 대응하고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디지털 종합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7월 8일 서울시와 '스마트 클라쓰'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디지털배움터 내 개설예정인 '스마트클라쓰' 는 기존 센터 내 성북구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60+재능나눔 아카데미' 의 '스마트폰 지도자 양성과정' 참여자들이 심화 학습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나석원 센터장은 "디지털배움터 '스마트클라쓰' 와 60+재능나눔 아카데미 '스마트폰 지도자 양성과정' 을 통해 성북구 내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02)957-9923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7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태블릿/스마트폰으로 그리는 그림, 디지털 드로잉', '이제 혼자서도 주문하기-키오스크의 모든 것',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하기반'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센터 '도시락' 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비대면 디지털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02)6220-8500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도 평생교육을 통한 어르신 정보화 SOC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스마트폰 기초과정과 어플 및 키오스크 사용교육 등은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현재 코로나 확산을 감안하여 휴강 중으로 차후 재개될 예정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디지털 역량이 떨어지는 어르신 뿐만 아니라 비용 문제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앙신도회, 불교성전 손글씨 공모전 개최

8월 31일까지 우편 접수, 대상에 상금 100만 원 수여

조계종단본 〈불교성전〉을 활용한 수행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손과 마음으로 읽는-불교성전 손글씨(필사) 공모전' 을 진행한다.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성전 읽기를 하며 손글씨로 필사한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각 가정의 신행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필사지는 중앙신도회 홈페이지(LBA.or.kr) 공지게시판에서 양식을 선택하면 된다. 원하는 필기구를 사용해 200자 원고 5매 이내로 필사하면 된다.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한 전국의 모든 불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대상에게는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에 50만 원이 수여되며, 우수상 장려상도 시상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5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함께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 선포식' 을 시작으로 릴레이 불교성전 법공양 챌린지와 인증샷 이벤트 등 불교성전을 활용한 다양한 대중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